

# 제네시스, 레드닷 디자인상 최우수상

커뮤니케이션 부문 2개 동시 수상 '제네시스 강남' · '제네시스 사운드'

제네시스 브랜드가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우수상 두 개를 한꺼번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제네시스 강남'과 '제네시스 사운드'가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이하 레드닷 디자인상)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리테일 디자인과 사운드 디자인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Best of the Best)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리테일 디자인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제네시스 강남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 모델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첫번째 독립형 전시관으로서 걸음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품격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가



치를 고객이 느낄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제네시스 강남은 세계적인 건축가 램 쿨라스(Ram Koolhaas)의 건축사무소 옴에이(OMA;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와의 협업으로 올해 1월 오픈했으며 누적 방문객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사운드 디자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제네시스 사운드'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음향으로 자동차의 웰컴사운드, 쇼룸, 이벤트 행사장, 광고 등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사용돼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제네시스 사운드는 한국의 전통 악기인 장구에서 영감을 받은 리듬을 활용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소리로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사업부장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부사장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디자인상인 레드닷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제네시스가 고유한 디자인을 만들어나가는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자동차는 물론 모든 부문에 있어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디자인상은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에서 주관하며,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 등 다양한 핵심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각 분야별 수상작을 결정한다. 올해 제네시스 브랜드가 수상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는 전세계 45개국에서 총 8,600여 개의 제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원주=이종복기자

## 설정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 '가결'

종단 역사상 첫 불신임

22일 원로회의 인준 최종 결정

학력 위조와 사유재산 은닉, 은처자(숨겨놓은 아내와 자녀)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퇴진 요구를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이 결의안이 가결이 종단 역사상 처음이다.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75명이 전원이 참석해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56표로 통과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 56표, 반대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설정 스님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저는 중헌과 중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위상에 걸맞은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헌 중법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분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 가결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원로회의 인준을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 원로회의에서는 현재 원로의원 24명 중 과반인 12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앞서 설정 스님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는 12월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 스님은 사유재산 은닉과 은처자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종단 안정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고자 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견제되고 조정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사퇴만이 종단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남은 기간에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혀 한 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겠다"며 "사부대중의 개혁에 대한 열망과 뜻을 담아 종헌중법을 재정비에 조계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 논의를 위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11차 임시중앙종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위야 물렸거라~ 정음농악 나가신다

정음시립농악단, 23일 내장산위터파크 야외공연장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을 날릴 시원한 공연 한마당이 펼쳐진다.

정음시립농악단이 오는 23일 저녁 7시30분 내장산위터파크 야외공연장(우천시 정음시예술회관)에서 하반기 정기공연을 갖는다.

식전공연으로는 시립국악단이 '사랑가'와 '난감하네' 등의 국악창작가요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지는 본 공연에서는 다섯째 마당에 걸쳐 정음농악 관공을 선보인다. 첫째마당에서는 시립농악단이 '두차미구'와 '오채질굿'을 선보이고, 둘째마당에서는 정준태와 시립농악단이 '농부가'를 공연한다. 셋째마당에서는 시립농악단이 장구놀이와 부포놀이를, 넷째마당에서는 여현수와 시립농악단이 '용기놀이'를 선보인다. 끝으로 다섯째 마당에서는 시립농악단원들이 대거 출연해 오방진굿과 열두발 삼도놀이를 펼친다.

정음농악 관공은 악(樂)가(歌)무(舞)희(戲)가 조화를 이뤄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농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다양하고 세련된 장단과 변화무쌍한 진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셋째마당이 부포상모를 쓰고 노는 '부포놀이'는 정음농악의 백미로 평가 받고 있고, '장구놀이'는 농악 관공 가락 중 멋진 가락을 골라서 조화롭게 구성한 창작 놀이이다. 또 '용기놀이'는 힘과 기(氣), 예(禮)가 결합된 것으로, 옛날 장정들이 용기놀이를 통해 힘을 뽐냈다고 전해진다.



유진섭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가뭄으로 지친 시민들께서 흥겹고 신명나는 공연을 보면서 기운을 찾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한편 정음시립농악단은 지난 1991년 창단됐다. 창단 이후 국내는 물론 일본 등 다수의 국외 공연 등을 통해 정음농악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30여 차례의 공연을 펼쳤다.

/정음=김대환기자

## 전북대, 국내 대학 최대 규모 문학상 공모

오는 31일까지 접수

당선자에 총 800만원 상금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문학상인 '가람이병기청년시 문학상'과 '최명희청년소설 문학상' (이하 문학상)을 공모한다.

총 상금 800만원 규모로 전북대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대표 장성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이며 시는 시조 포함 세편 이상, 소설은 한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 작품은 전북대신문 개교기념 특집호(10월 17일 예정)에 발표된다. 작품은 전북대신문방송사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전북대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과 '혼불'의 최명희 작가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총상금 규모가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문학상의 모태는 1955년부터 운영돼 오던 전북대신문 학생작품 현상모집이며 최명희 작가 역시 지난 1971년 '정육이'라는 작품으로 현상모집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한편, 이 문학상은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를 발굴하며 명실상부한 문학인 등용문이 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인 손흥규 소설가와 김경주 시인을 비롯해 권상혁·김보현·김학찬·이갑수·전아리 소설가, 박성준·백상웅·이해미·조율(조윤희) 시인 등이 이 문학상 출신이다.

/김재훈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